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 이념 양극화에 대한 오해

김 욱
배재대 정치언론안보학과 교수

현재의 한국 정치를 부정적으로 특징짓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지역주의와 이념 양극화일 것이다. 지역주의의 병폐와 해악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오해와 혼란이 있는 듯하다. 한국 정치에서 보수-진보 간 이념 갈등이 중요해 진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당시 이념 갈등이 부상하면서 지역 갈등이 한국 정치에서 누리던 독점적 영향력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초창기의 이념 갈등은 오히려 긍정적 시각에서 해석되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이념 갈등이 이념 양극화 현상으로 표현되면서, 지역주의에 버금가는 한국 정치의 병폐로 묘사되고 있다.

먼저 이념 갈등 그 자체는 결코 부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에서의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어떠한 갈등이던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보다는 표출되는 것이 건강한 민주사회의 신호이다. 특히 사회의 다양한 갈등 중에서도 이념 갈등은 다른 갈등에 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역 갈등이나 세대 갈등과 비교해 볼 때 이념 갈등은 타협점을 찾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영남과 호남이 대립할 때는 중간 타협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충돌할 경우 양쪽의 입장을 균형 있게 대변해 주는 세대를 발견하기 어렵다. 반면 보수-진보 간의 갈등에서는 얼마든지 정책적 타협이 가능하다. 그것은 보수와 진보가 기본적으로 연속적 개념이기에 그렇다.

이념 갈등이 다른 갈등에 비해 바람직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정책에 대한 입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권자가 특정한 이념성향을 가진다는 것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선호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수적 유권자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선호하고 진보적 유권자는 성장보다는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을 중시한다.

따라서 많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와 진보로 분명히 나누어지고 대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우리보다 민주정치가 발전한 서유럽 국가에서 보수-진보 이념 갈등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균열로 자리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념 갈등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표현이 중도 혹은 중도실용주의다. 그런데 중도란 분명한 이념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관용하고 이해함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원칙이나 입장 없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중도실용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진정한 중도 정치세력은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을 부정하는 독선에서 벗어나 관용과 타협을 실현할 수 있는 세력이다.

만약 한국에서의 이념 갈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보수-진보 간 타협이 선진 민주국가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 갈등이나 양극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양자 간 타협이 한국에서 잘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이념 갈등이 가지는 특수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분단국가라는 현실이다. 반공, 친북과 연계되면서 이념 갈등은 타협 가능한 정책적 대립보다는 타협이 어려운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또 다른 특수성은 이념 갈등이 세대 갈등과 중첩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를 경험한 결과, 전쟁과 가난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신세대 간에 가치관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이념 갈등과 중첩되어 기성세대는 보수, 젊은 세대는 진보 성향을 가질 확률이 높다. 이념 갈등이 세대 간에 존재하는 기본 가치관의 차이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협이 쉽지 않은 것이다.

서구 민주국가에 비해 한국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더욱 분극화되어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양극화를 내세우며 유권자가 분명한 정책적 입장을 가지는 현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은 결코 한국 민주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념을 없애는 일이 아니고, 서로 다른 이념을 관용하고 타협하는 성숙함이다. 이러한 성숙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의료칼럼

# 활성산소 통제만 잘해도 '건강 업'

김 철 웅
우암병원 항노화클리닉센터 원장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바람이다. 하지만 젊어서 건강하고 왕성한 활력을 지녔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활기를 잃으며, 나아가 죽음에 이르는 모습을 보노라면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을 실감한다.

나이가 들어도 젊은이 못지 않은 건강과 활기를 유지할 수는 없을까? 노화를 막지는 못하더라도 노화의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노인성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

전세계 의학계는 이러한 인류의 공통된 염원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오래전부터 집중적인 연구를 해왔으며, 특히 장수의학과 항노화의학을 중심으로 노화의 원인과 작동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의미있는 노화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불안정한 형태의 산소가 우리 몸의 여러 부위를 손상(산화)시켜 결과적으로 혈관, 세포, 유전자의 변형이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노화를 유발한다는 '활성산소설'은 노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비교적 임상적 실증을 구체화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표적 학설이다.

공기 중의 산소는 원래 안정된 분자 상태로서 우리 몸이 호흡을 하고 섭취한 음식물을 에너지화하는 대사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명의 필수인자이다. 그런데 흡입된 산소가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영양분과 결합해 에너지로 바뀌는 대사 과정에서 다 쓰이지 못하고 일부가 남아 지나치게 활성화돼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매우 강한 형태로 존재하면서 우리 몸에 상당한 해악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활성산소라고 한다.

의학계에서는 활성산소를 인체의 배기가스로 부르고 있을 만큼 활성산소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크다. 현대인의 질병 중 90%가 활성산소의 과잉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물론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적절한 양의 활성산소는 세포 간의 신호 전달과 침입한 세균을 죽이는 면역 작용 등 순기능을 제공하기도 한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원리를 살펴보자. 화학에서 라디칼(활성)은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포함하는 원자, 이온, 분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려는 경향이 커서 쌍을 이루지 못한 활성산소는 주변의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안정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기타 필수 물질이 산화돼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 이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한다.

이와 관련 신비한 우리의 인체는 이러한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생화학적 방어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항산화 방어체제'이다. 항산화 방어체제는 인체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에서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 활성산소에 의한 인체의 손상을 막아내기 위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항산화 능력이란 방어체제를 통해서 인체가 산화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능력의 크기로 크게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과산화효소 등과 같이 체내에서 합성 가능한 효소와 비타민 A, C, E 등과 같이 식품 등을 통해 흡수해야 하는 항산화제를 합해 그 능력이 결정된다.

개개인의 항산화 능력은 각자의 건강상태와 생활 습관, 환경적 요인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활성산소의 발생이 많을 경우와 항산화 능력이 낮을 경우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위협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Huber R. Warner 박사는 '노화는 환경이 인간에 주는 재앙과 인간이 지닌 유전적 특성인자가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현상'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노화의 원인을 활성산소로 규정하고 있는 장수학자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적게 생성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길고, 항산화 능력이 향상되면 노화를 지연시켜 최소 수년 이상의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화의 원인과 방지 방법을 명확히 규명한 확정적인 학설은 아직 없지만, 20세기 중반 미국의 과학자 레베카 거쉬만 등이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주장한 이래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입증을 통해 체내에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가 개인의 항산화 방어체제 하에서 적절히 통제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질병과 노화의 위협이 가속화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국민 모두가 활성산소의 과잉을 통제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기 고

# 광주형 마을 만들기는 '분수대 학습법'으로

문 병 교
마을활동가·스토리텔링 작가

작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는 아마도 '경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는 모든 사회적 의제를 함몰시키는 블랙홀과 같은 흡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신과 영혼을 말하는 것은 자칫 세상물정 모르는 한가한 투정쯤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은 적어도 일 년에 한번 씩 경제보다 중요한 명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5월이 뭇 사람들에게 주는 큰 깨우침일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려면 육신에 필요한 밥과 반찬 말고도 정신과 영혼의 음식도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도, 기실 먹고사는 것도 정신의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물질이 종교처럼 숭상 받고, 경제가 모든 것의 척도가 되는 세상은 결코 우리의 가치 지향이 될 수 없음을 알지만, 사람들은 위정자의 말장난에, 돈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성적적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물질에 예속된 핍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무상한 세월의 흐름 따라 올해도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둘러싸고 너무도 다르게 해석하는 세상이 얄미워집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이웃들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고 웃으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 갈 수 있는 비밀은 광주 공동체가 생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살맛나는 광주공동체를 만드는 방법과 원리를 금남로에 있는 분수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철학도 영혼도 없이 진행되는 많은 종류의 마을 만들기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엄연한 현실에 비춰볼 때, '분수대 학습법'은 광주다운 마을 만들기의 실천철학이요, 동시에 방법론이라 할 것입니다. '분수대 학습법'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 배우는 교육법이며 동시에 그 자체로 마을 만들기입니다.

'분수대 학습'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광주의 원로 마을활동가인 최봉익 선생입니다. 광주의 마을 만들기는 언필칭 '광주다워야 한다'는 것이 선생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광주형 마을 만들기의 철학이며, 가치의 기반입니다.

소위 '마을만들기'는 여러 유형과 가치, 담론을 품은 채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과 내용, 저마다의 양태는 다르지만, 그것의 바탕에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개별적 자아의 존중과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민관합동 거버넌스(governance)형 마을만들기가 불문률의 원칙이 된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부산에서, 크고 작은 타 도시에서 펼쳐지는 마을만들기와 광주의 마을만들기는 분명코 달라야 한다는데 누구라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다운 마을만들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 광주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광주라는 토대위에 서있는 장삼이사 누구라도 동의하는 광주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어떤 이는 광주를 일컬어 예향(藝鄕)이요, 의향(義鄕)이요, 미향(味鄕)이라 하겠지요? 세상에 유행하는 언어인 통섭과 융합, 통찰력을 발휘해보아도 막연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기실 언어적 표상의 체(體)와 용(用)은 무한까닭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민주, 인권, 평화'라는 말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누군가는 날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평등의 어머니 산 무등 아래, 모두가 어울려 뜨거운 가슴 부딪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대동세상일까요? 진정으로 광주다움을 담지 할 수 있는 언어는 하나의 단어, 몇 줄의 문장으로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벌써 사람들의 기억에서 아스라해져가는 1980년 5월에도, 지금도, 그 자리에 의연한 한 떨기 꽃으로 서 있는 금남로 분수대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로 거기 전남도청 앞 분수대 앞에 모였던 사람들의 말없는 외침, 핏빛 절규로 보여주었던 광주정신의 큰 물줄기를 잊지 말라고, 무슨 일이든 함께하라고, 그때 모였던 광주사람들의 위대하고 고귀한 외침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뜨거운 원형의 광장에서, 무시무종(無始無終)의 원형 안에서 사람들은 토론하고, 주장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거기 그 자리는 빈부귀천도 선생도, 학생도, 정해진 각본도 없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광주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정신성을 광주다운 마을 만들기에 계승 적용하는 것이 '분수대 학습법'의 의미요, 비전입니다.

社 說

# 세월호 참사 1주기, 이제 진실을 인양하자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304명의 생명들을 저세상으로 보내고 슬픔에 젖어 지낸 지 벌써 한 해가 흘러간 것이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9명의 실종자 가족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한 채 비탄에 젖어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생업을 접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길거리를 전전하고 있다.

이제 고교 3학년이 된 생존 학생들은 사고 당시의 악몽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국민들도 충격과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진도 팽목항에는 그날의 절규를 지켜보듯 무수한 노란 깃발과 리본이 나부끼고, 추모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1년, 정부와 우리 사회는 '안전'을 그렇게 외쳤건만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다. 정부의 대책은 미봉책이요, 국민의 의식도 변하지 않아 안전 불감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 담양 펜션 화재, 강화도 야영장 화재 등 참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1년 전보다 안전사고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정부는 국민안전처 신설과 해경 해체 등 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안전한 대한민국'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할진대, 신설 부처에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온갖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됐어도 극히 일부만 처리되고 대부분 서랍 속에 갇혀있다.

정부 고위층 가운데 세월호와 관련, 책임진 인사는 단 한 명도 없으며 진상규명마저 요원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멈춰 서 있고, 특별법 시행령안은 정부가 조사에 관여할 소지가 다분해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역시 비중을 두고 있으나 '저울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월호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진도는 아직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고 트라우마에 우울증세마저 보이고 있다. 관광객들의 발길은 끊긴 지 오래고, 상인들은 매출이 오르지 않아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형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입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방침인데다 단기간 금전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은 불만이 높다.

지금 우리의 '안전 시계'는 1년 전 그날에 멈춰 있다. 정부든, 국민 개개인이든 법과 제도에 앞서 의식에 변화가 없는 한 안전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결단을 내려할 시점이다.

# 여객선 공영제 해상교통안전 최선책이다

여수시가 지역 연안 항로의 안전운항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제도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항로의 여객선을 정부나 지방정부가 예산을 들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해상 수송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전남지역 연안 55개 항로에는 34개 선사가 92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연안 여객선 수의 53%에 이른다. 문제는 대부분의 항로가 적자 운영으로 선사의 추가 투자 여력이 없어 1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많이 운항되고 있다는 점이다.

1년 전 세월호의 침몰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선사의 과적과 무리한 운항에서 비롯됐다. 영세한 연안 여객선사들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안전을 도외시할 수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대형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수시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해주고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확대해주도록 해수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또 거문도 등 주요 항로의 신규 선사 유치를 위한 대책 촉구한 데 이어 결손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지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는 최근에야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연안 여객선 운항 상황을 고려하면 공영제 도입이 시급하다. 여객선 운영의 지원 확대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섬주민들과 관광객들도 육상의 시내버스처럼 여객선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 돌아오지 않는 친구들

양희은의 '아침이슬'을 작곡한 김민기(64). 그가 최근 광주항쟁에 대한 노래나 공연물을 만들지 못한 이유를 한 일간지에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함부로 묘사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아이들에 대해서 노래를 못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같이 살든가 같이 죽든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찌…." 끔찍한 죽음 앞에서 당사자만큼 절실하지 않으면 그걸 묘사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

이런 일화도 들려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어떤 영화감독이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주제가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야! 나 박정희가 시켜도 그런 거 안 했어." 그래 놓고는 안쓰러워서 고등학교 때 만든 '친구'라는 노래가 있으니 그걸 쓰라고 했다는 사연.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하는 그 노래. 당시 그는 고3이었다.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이랑 강원도로 야영을 갔다가 후배 한 명이 죽었고, 그 사실을 후배 부모한테 알리려고 서울로 오는 기차 안에서 느낀 걸 노래로 만들었다고 한다.

아, 그랬구나. '친구'라는 노래에 왜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독재시절 암울한 시대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친구'를 부르면서 감옥에 간 동료를 생각하기도 했는데….

'들국화'가 리메이크한 그 노래 '친구'가 흘러나오는 세월호 추모영상을 무거운 가슴으로 다시 돌려본다.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을 알고 들으니, 찢어지는 듯 허스키한 전인권의 독특한 목소리가 더욱 가슴을 찢는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되는 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의 사연을 담은 시 한 편이 또다시 나를 울린다.

"아이는 5월5일 내 품에 돌아왔지만/ 수학여행 갈 때 아이의 손에 쥐여 준/ 이만 원이 전부였으니 그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아이의 젖은 옷에서 꺼낸 지갑에는/ 두 번 접힌 만 원짜리 두 장이/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떡해요?/ 그 돈마저도 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홍재 논설고문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회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제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조사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